

## 하부식도 및 Cardia에 발생한 식도종양의 위장을 이용한 식도재건술의 외과적 치험

국립의료원 흉부외과

강경민 · 강경훈 · 김병열 · 이정호

1983년 11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중부 및 하부식도암과 상부위장관암환자 40명을 경험하였고 이중 32명에 대해서 수술이 적용되었다. 수술은 위장관을 이용해 흉골후방경로를 통해 문합술을 실시한 경우가 1례, 상부식도암 및 부식성화확물질로 인한 식도협착에 동반된 하부식도선암에 실시한 식도절제후 결장을 사용하여 상부소화기재건술을 실시한 경우 2례, 우측개흉술을 통한 식도위절제술 1례를 제외한 28례에 대해서는 좌측개흉술을 통한 식도절제 및 식도위문합술을 실시하였다. 진행된 암과 영양상태불량으로 인해 8명에 대해서는 보존적 위루술 또는 공장루술을 시행하였다. 본 흉부외과에서는 고식적 요법으로서 개흉술을 통한 식도위절제술을 시행한 28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을 해보았다. 병리조직학적으로 편평상피암이 23례, 선암이 5례였다. 성별분포는 남자 25례 (89%), 여자 3례 (11%)였으며, 연령분포는 46세부터 73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 $58.65 \pm 7.15$ 세였다. 내원당시 증상으로는 연하곤란이 22례 (78.5%), 체중감소 15례 (53.5%), 흉통 6례 (21.4%), 구토 및 선목소리가 각각 1례 (3.5%)였다. 재원기간중 30일 이내 수술사망례는 1례로 수술사망율은 3.7%였다. 사망원인은 문합부누출로 인한 2차적인 패혈증이었으며 그 외 수술합병증으로 급성호흡부전증 1례, 슬후출혈 1례, 횡격막탈장 1례, 급성신부전증 1례 및 지연성 문합부협착이 1례 있었다. Kaplan-Meier법에 의한 1년, 2년, 3년 누적생존율이 각각  $75.6 \pm 9.5\%$ ,  $43.2 \pm 11.6\%$ ,  $21.6 \pm 10.5\%$ 였으며 최장기간 추적관찰된례는 슬후 58개월째 사망하였다. 사망이 확인된 17례의 슬후 평균생존기간은 21.8개월이었다. 본 연구에 의하면 원발성 중, 하부식도암 및 상부위장암에 있어서 좌측개흉술을 통한 식도위문합술은 장기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고식적 치료법이 될 수 있으며, 전신상태가 나쁜 환자에게도 수술사망율과 합병율이 낮은 술식이다.